문화와 융합 (제42권 4호)(통권 68집)
Culture and Convergence
April. 2020. Vol. 42, No. 4.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DOI https://doi.org/10.33645/cnc.2020.04.42.4.873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영광* · 송원영**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결과
4. 논의

1. 서론

'성인 초기'는 후기 청소년기(오찬호, 2010; 조혜영, 2013;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윤민지, 2018), 청년기(Keniston, 1965), 성인 초기 전환기, 입문기(Levinson & Levinson, 1998), 성인 모색기, 성인 진입기(Arnett, 2000, 2004) 등 다양하게 불린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시기의 특징을 매우 유사하게 정의한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독립 준비, 자아 정체성 확립과 직업 선택 그리고 연애, 결혼 등의 심화된 대인관계는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발달과업이다.(Erickson, 1970; Steinhardt & Dolbier, 2008; Neugarten & Datan, 1974; 권중돈 2014).

* 제1저자, 건양대학교, 학생, hyk0502@hanmail.net
** 교신저자, 건양대학교 논산캠퍼스, 교수, song@konyang.ac.kr

특별히 Arnett(2000)는 사회 변화로 발달 과업 성취가 늦어지고, 유예기간이 늘면서 성인 초기의 범위를 18-25세로 새롭게 지정하였다. 왜냐하면 성인 초기에 앞서 언급한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과 탐색하고 시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그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Arnett, 2007).

Arnett는 이 시기가 '자아정체성 탐색의 시기'(the age of identity exploration), '불안정한 시기'(the age of instability), '자기 중심성의 시기'(the most self-focused age of life) '중간에 낀 느낌이 드는 시기'(the age of feeling in-between), '가능성의 시기'(the age of possibilities)라는 총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Arnett, 2004; Arnett & Tanner, 2006).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은 한국에서도 나타났는데, 김은정(2014)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성별에 따라 이 시기의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20대 남녀의 뚜렷한 다른 경험으로는 '군대'가 있다. 남성들은 다른 시기보다 군대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또한 군대 내의 조직문화와 대인관계 형성은 한국 사회에서 성인으로 살아남는 것을 배우는 성인기 이행의 기제(agency)가 된다. 이런 경험은 아직 남성 중심적인 직장 분위기 내에서(박기남, 2011) 적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취업 준비나 취업 후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내 차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김은정, 2014).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Arnett의 제시대로 만 18세에서 25세 연령의 성인을 성인 초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인을 기준으로 한 연령인 만큼 한국 실정에 맞춰 그 기준을 만 나이로 하였다.

이 시기의 과정 중 하나인 대학은 자아실현, 진로 결정, 취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광현, 강성배, 2016). 이는 대학의 사회적 자원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강대용, 이성주, 2020). 그러나 '학벌 사회' 및 '취업 공포'는 1~2학년의 '반수', '편입', '대학 중퇴'를 시도하게 하고, '휴학'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펙에 대한 압박, 청년실업률과 등록금 걱정은 대학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권중돈, 김동배,

2005). 그뿐 아니라 독립성이 보장되지만, 그 대가로 주체적인 시간 관리와 대인관계를 해야 하는 것은 수동적인 시간 관리와 제한된 대인관계를 형성했던 청소년기와는 다른 환경이다(권중돈, 김동배, 2005; 이다혜, 2015). 이전과 확연히 다른 환경의 변화는 자아 성취를 위해 필요한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의 20대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전보다 교육과 지원을 더 받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를 이룬 세대이다(이유림, 2015). 하지만 가부장적 문화를 지배했던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여성상'을 원하는 태도는 지금도 많은 곳에 존재한다(김정민, 2017; 이유림, 2015). 취업, 결혼, 출산 등의 과업들을 남성과 동등하게 수행하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김은정, 2014). 또한 남성에 비해 특히 여성들은 외모, 능력, 역할 등에 대한 모순적인 것들을 요구받고, 일과 관계의 두 역할을 모두 붙잡을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딜레마를 경험하곤 한다(Haydon, 2015). 이렇듯 20대 여성이 처한 사회적 환경은 여성들에게 자아성취와 높은 성공을 꿈꾸게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일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자각으로 남성에 비해 더 큰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선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이 시기의 남녀가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하였고, 남성에 비해 사회적 적응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성을 우선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는 불안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심리장애로, Kessler 등 (1994)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24.9%가 어떤 유형의 불안장애든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미경, 조용래, 2005에서 재인용). 불안은 긴장과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신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며, 침습적인 사고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으로 정의되며(APA, 2000) 그 정의상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긴장된 느낌이나 불편한 감정, 걱정 등을 포함한다(Cambridge dictionary, 2019). 이와 같은 정의는 미래 불안과 비슷해 보이나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사실상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 현상이나(Boniwell, 2009), 개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주는 주관적 현상이기도 하다

(Hendricks & Peters, 1986).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조망을 갖는다(Zimbardo & Boyd, 1999). '시간 조망(Time Perspective)'은 '특정한 시간 영역에 대한 개인의 지향성 또는 태도'(Webster, 2011)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 정서적 반응,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에 큰 역할을 한다(Zimbardo & Boyd, 1999). 특히 미래 시간 조망(Future Time Perspective, FTP)은 자신의 남은 인생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인간의 동기와 인지,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arstensen, 2006). 미래 시간 조망은 단순히 광범위하게 미래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 및 걱정이 아닌, 자신의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지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시간 조망의 관점에서 성인 초기 여성은 독특한 불안을 갖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심리적, 경제적 자립 준비, 자아정체성 확립 및 직업 선택,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심화해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인 초기 여성은 높은 이상향을 갖게 되었는데, 사회적 현실의 벽은 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 좌절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인 초기는 특히 여성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여서(Frisén & Wängqvist, 2011)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우울과 불안을 초래한다. 이와 일치하게, 이 시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인 불안감이 높고,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의 비율도 많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현대사회에서의 이러한 독특한 불안은 예기불안과는 다르게 정의하여야 한다. 예기불안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불안이라면 미래 불안은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래 불안'을 인생의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불안을 비롯한 각종 문제와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Lazarus & Folkman, 1984). 불안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자원에 비해 부담이거나 넘어서는 요구에 대하여 통달 및 감내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된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Pearlin & Schooler, 1978; Cohen & Lazarus, 1979; 전겸구, 1992에서 재인용).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의 목적을 문제 및 정서 조절,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기 조절적 기능에 있다고 보고 이에 기반하여 대처 유형을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로 나누었다. 문제 중심적 대처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적 · 내적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한편 정서 중심적 대처란 문제 상황을 수반해서 나타나는 정서적 불편감을 조절함으로써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1992)는 대처를 개인적 대처(personal coping), 대리적 대처(vicarious coping)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대처란 자신의 행동, 기술, 능력, 자원을 이용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대리적 대처란 타력에 의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사회적 대처(social coping)와 종교적인 대처(religious coping)로 나뉜다. 사회적 대처는 친구, 가족 등 사회적 자원에 의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종교적 대처는 절대적인 존재 또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적절한 대처는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시험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Cohen, Ben-Zur, & Rosenfeld, 2008), 부적응적인 대처는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이 된다(Mahmoud, Staten, Hall, & Lennie, 2012). 문제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 유형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 불안에 대해서도 그 대처 유형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것은 향후 적응을 예측하고 개입하는 것에 매우 필요한 일이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나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pielberger, 1970), Beck 불안 척도(Beck, Epstein & Brown, Steer, 1988),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강진화, 이정애, 오강섭, 임세원, 2013), 한국판 자비불안 척도(정주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 김정기, 2015), 유기불안 척도(오남경, 이영순, 2015), 양육불안 척도(위지희, 채규만, 2015), 죽음불안 척도(신경일, 김두길, 2018),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최명희, 김진숙, 2019), 다차원적 대처 대처 척도(전겸구, 김교헌,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등, 1994), 스트레스 대처 척도(Folkman & Lazarus, 1985) 등이 있다. 그러나 미래 불안 및 그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앞서 살펴본 개념들을 적절히 측정하여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에 대한 대처 유형을 구분하고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립과 독립, 직업, 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많은 탐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 문제를 안고 있는 만 18~25세 시기를 '성인 초기'라 정의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일과 관계에 대한 양가적인 사회적 요구로 인해 미래 불안의 영향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척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의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미래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예비조사를 위해 중부권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한 성인 초기 여성(만 18~25세)을 대상으로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다차원적 대처 척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Novaco Anger Inventory - Short Form; NAI-25)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95명이 응답하였다. 그중 같은 답에 반복적으로 응답한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예비조사에 참여한 동일 대상 93명을 대상으로 4주 뒤에 실시하였고, 51명이 답변하였다. 본조사 역시 예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에는 104명이,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155명이 참여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학력은 고졸 8.6%, 대졸 및 대학교 이상이 19.4%, 대학교 재학 중이 72%였고, 직업은 무직 6.5%, 직장인 19.4%, 대학생 74.1%였다. 본조사에서는 전산 오류로 인구통계학적 값이 없는 5명을 제외하면, 고졸 7.3%, 대졸 12%, 대학교 재학 중이 80.6%

였고, 무직 8.7%, 직장인 11.3%, 대학생 80%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대학생 비율이 모두 높았다.

2.2. 측정 도구

2.2.1.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척도로, 예비조사에서 요인분석을 거쳐 3요인으로 확정되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완전 그렇다(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총 9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대처 .72, 언어적 대처 .74, 초자연적 대처 .87로 나타났다.

2.2.2. 다차원적 대처 척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스트레스와 대처, 적응 간의 관계성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전겸구 등(1994)이 개발하였다. 척도는 (개인적 대처 자원), 적극적 대처, 소극적 철수, 정서 표출, 적극적 망각, 고집, 긍정적 해석, 긍정적 비교, 동화, 체념, 자제, 자기비판, 정서적 진정, (사회적 대처 자원),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정서적 지원 추구, (종교적 대처 자원), 종교적 추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총 6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겸구 등(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2.2.3.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Novaco Anger Inventory – Short Form; NAI–25)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은 Devilly(2002)가 Tony Kidman의 "Tactics For Change"에 나와 있는 척도를 인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1975년에 개발된 Novaco 분노 척도에서 추출되었고, 90개 항목 중 25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또한 원척도와 동일하게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 정도를 측정한다. 모든 문항은 '거의 혹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0점)'에서 '대단히 화가 난다(4)'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Devilly(2002)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로 나타났다.

2.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절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문항 구성을 위해 김소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2), Folkman과 Lazarus(1984)가 개발하고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수정 보완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에서 대처 행동 유형 및 방법 등을 참고하여 75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및 불안 대처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의 특징을 나타내는 20문항을 추가, 총 95문항을 추출하였다. 관련 문항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자기 중심 대처, 타인 의존 대처, 초자연적 대처 세 요인을 가정하였다.

두 번째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임상심리전문가인 교수 1명, 상담 심리 전공 석사 학위자로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상담 심리 실무자 1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토 방식은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과 부합되는 적합성과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문항들 사이사이에 수정, 첨가 등의 여부를 묻고 수정 내용을 직접 넣도록 하였다. 평가자 모두에게 3점 이상을 받은 문항은, 자기 중심 대처 14문항, 타인 의존 대처 10문항, 초자연적 대처 12문항으로 총 36문항이 선정되었다.

36문항을 대상으로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최대우도, 요인회전은 사각회전(Oblimin rotation)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을 확인하기 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KMO 표준적합도, Bartlett 구형성 검정지표를 검토하였다. 요인의 선택 및 제거는 고유치(eigenvalue) 스크린도표, 누적분산비율, 이론적 배경 등으로 결정하였고,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예비 문항과 같이 세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문항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문항 내용을 참고하여 세 요인으로 묶인 변인에 대해서는 언어적 대처, 정서적 대처, 초자연적

대처로 이름을 수정하였다. 각 요인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선정한 측정 도구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GFI(Goo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E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대처 척도(전겸구 등, 1994), Novaco 분노 척도(Novaco Anger Scale: NAS)와의 상관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적 대처 척도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예상하였고, Novaco 분노 척도와는 중간 또는 낮은 상관을 예상하여 각기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증해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내적일관성 계수로는 Cronbach's α를 확인하였고, 4주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분석에는 SPSS 21.0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1〉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개발 과정

예비 문항 구성	● 문헌연구 및 기존 척도 분석 → 총 95문항 추출
⬇	
내용 타당도 검증 및 예비 문항 추출	● 내용 타당도(전문가 2명, 문항 적합도 평가) ● 안면 타당도(검사대상자 8명) → 총 36문항 추출
⬇	
예비조사	● 대상 : 만 18~25세 여성 93명 ●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 총 9문항 3요인
⬇	
본조사	● 대상 : 만 18~25세 여성 155명 ●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 총 9문항 3요인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검사 도구 완성	●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3. 결과

3.1.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

최초 개발된 95문항은 연구 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차례의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 검증을 통해 36개의 예비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예비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의 응답(n=93)에 대하여 사각회전(Oblimin rotation)을 사용한 최대우도추출법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확인하기 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KMO 표준적합도, Bartlett 구형성 검정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MO=.675, Bartlett 구형성 검정=1277.156, p〈.001으로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치(eigenvalue) 1.0이상, 스크리 도표, 누적 분산비율, 이론적 배경 등과 요인부하량 검토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4이상이면 괜찮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요인부하량이 0.4미만인 문항은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9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 별 문항 수는 3문항이다. 한 요인으로 인정하는 최소 문항 수는 3문항 이상으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단일 요인으로 상정하였다(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Zwick & Velicer, 1986).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64.87%로 각 요인별로 문항의 특징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2의 1차 요인분석).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언어로 불안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적 대처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자신 혹은 타인에게 정서를 표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서적 대처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신이나 종교서적 등 초자연적 힘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자연적 대처라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9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3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조사에서 다른 피험자들을 대상으

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n=155). 최대우도추출, 사각회전방식으로 3요인 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 변인의 59.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은 표본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2의 2차 요인분석).

〈표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요인분석에 따른 요인부하량 (괄호안은 예비조사의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내용	1차 요인분석 (N=93)			2차 요인분석 (N=155)		
			1	2	3	1	2	3
언어적	1(17)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886	.152		.778		
	2(22)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607	-.108	.116	.555	-.127	
	3(9)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예: 가족, 친구, 애인, 교육자, 전문기관, 종교지도자 등).	.805			.728	.127	
정서적	4(18)	혼자(속으로든 겉으로든) 욕을 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111	.474			.429	
	5(20)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예: 가족, 친구, 애인 등).	.118	1.001			.864	
	6(28)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예: 가족, 친구, 애인 등).		.776			.877	
초자연적	7(24)	기도를 한다(예: 염불, 조상신, 소망, 돌탑 등).			.864			.972
	8(5)	경전(성경, 불경, 코란 등)을 본다.			.857			.699
	9(16)	자신의 종교에 해당하는 신 또는 종교와 상관없이 신적 존재를 찾는다.			.791			.857

상관분석을 통해 전체 척도와 하위 유형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요인과 전체 척도는 중등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각 요인간의 상관은 언어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 r=.15($p<.01$), 언어적 대처와 초자연적 대처 r=.32($p<.01$), 정서적 대처와 초자연적 대처 r=.12($p<.01$)로 상관이 없거나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표 3).

〈표 3〉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N=155)

구분	언어적 대처	정서적 대처	초자연적 대처	전체
언어적 대처	1			
정서적 대처	.15	1		
초자연적 대처	.32**	.12	1	
전체	.74**	.54**	.73**	1

** 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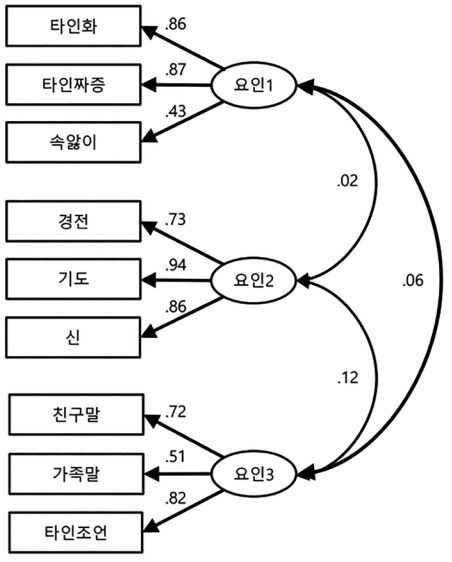
3.2.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의 3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CMIN/df, GFI, AGFI, NFI, CFI, TLI, RMSEA를 이용하여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χ^2 을 많이 사용하나,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고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한다.

적합도 지수는 GFI=.960, AGFI=.925, NFI=.944, CFI=.987, TLI=.980, RMSEA=.043로, GFI, NFI, CFI, TLI는 .90이상, AGFI는 .85 이상, RMSEA는 .05 이하인 경우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김계수, 2010). 따라서 척도를 구성하는 3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요인의 구조모형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4〉 적합도 지수(N=155)

구분	x^2	df	CMIM/df	GFI	AGFI
3요인 모형	30.940	24	1.289	0.960	0.925
	NFI	CFI	TLI	RMSEA	
	0.944	0.987	0.980	0.043	



〈그림 1〉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최종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3.3. 준거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수렴 타당도 검증은 다차원적 대처 척도(전겸구, 1994)를 변별 타당도 검증은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Devilly, 2002)을 사용하였다. 표 5에 소개한 바와 같이 다차원적 개발 척도($r=.77^{**}$, $p<.01$)와는 높은 상관, Novaco 분노 척도($r=.37^{**}$, $p<.01$)와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표 5〉 성인 초기 여성이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와 다차원적 대처 척도, Novaco 분노 척도와의 상관 관계 (N=104)

척도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정서적 대처	언어적 대처	초자연적대처	전체
다차원적 대처 척도	정서 표출	.50**	.10	.10	.32**
	문제해결 추구	.19	.56**	.24*	.50**
	정서적 지원 추구	.29**	.56**	.28**	.56**
	종교적 추구	.08	.13	.91**	.60**
	전체	.33**	.40**	.73**	.77**
Novaco 분노 척도		.47**	.27**	.11	.37**

* $p<.05$, ** $p<.01$

3.4. 신뢰도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문항내적합치도는 Cronbach's α=.71로 적절하였고, 각 소척도도 .72~.87로 적절한 분포를 보였다.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2**(p〈.01)로 적절한 편이었으나, 소척도에서는 정서적 대처 .45, 언어적 대처 .51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고, 초자연적 대처는 .77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표 6).

〈표 6〉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일치도 Cronbach α (N=155)	검사–재검사 신뢰도 (N=51)
정서적 대처	.74	.45**
언어적 대처	.72	.51**
초자연적 대처	.87	.77**
전체	.71	.62**

4. 논의

이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 있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척도들을 분석하여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고, 두 명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하고, 도출된 문항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일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적절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척도는 적절한 요인 구조를 가지고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된 척도는 3요인으로 각 요인별로 적절한 요인 일치도를 보였고, 요인간에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구성된 요인이 독립적으로 각 대처 유형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된 척도는 3개의 요인으로 초기에 가정했던 요인 수와 일치하였으나 검증 과정에서 요인 이름 및 문항 구성이 달라졌다. 초기 요인은 자기 중심 대처, 타인 의존 대처, 초

자연적 대처였다. 그러나 자기 중심 대처였던 18번 문항(혼자 (속으로든 겉으로든) 욕을 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과 타인 의존 대처인 20번(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과 28번(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 문항이 한 요인으로 묶였다. 18번 문항은 자기 중심 대처의 하위요인 중 정서 중심 대처를 측정하는 문항이었고, 20번과 28번 문항 역시 타인 중심적 대처의 하위요인 중 정서 중심 대처를 측정하는 문항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 대처와 타인 의존 대처보다 정서중심 대처라는 분류가 공통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 양상이 행동적 양상과 인지-정서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전겸구(1992)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요인을 문항의 특성에 맞게 언어적 대처, 정서적 대처, 초자연적 대처라 명명하였다.

둘째, 이 척도의 수렴-변별 타당도는 적절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처 척도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두 척도 모두 대처 양식을 측정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점(Hwsiit, Flett & Mosher, 1992; 하정 & 안현의, 2013; 신혜진, 2019)은 다차원적 대처 척도와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의 상관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 척도가 적절한 대처 양식 척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차원적 척도는 스트레스와 대처, 적응 간의 관계성을 측정하고, 개발된 척도는 미래 불안의 대처 유형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척도는 구별된다. 한편,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과는 낮은 상관을 보여 적절한 변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서적인 대처 유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낮은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Novaco 분노 척도는 정서를 측정하고, 개발된 척도는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상관이 낮은 것이 적절하다.

셋째, 이 척도는 적절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높은 내적합치도를 보였고, 각 요인별로도 .7~.8의 내적합치도를 유지하였다. 다만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2로 기대보다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다소 높지 않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시간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의심해보게 한다. 하지만 미래 불안은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대처

나 언어적 대처의 시간적 안정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것은 이 척도에서 측정하는 개념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척도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자연적 대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다른 대처에 비해 일관성 있는 대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는 초점 대상자의 직업군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참여자의 약 75% 이상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을 표집이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개발된 척도를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직업군을 표집한 후속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이 인터넷 설문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수가 다소 적다는 점이다. 연구 기간은 약 4개월(2019. 03 ~ 2019. 06)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져 충분한 수의 표본을 모집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인터넷 조사연구의 한계점인 직접적인 참여자 확인의 어려움, 연령이 맞지 않는 참여자 발생 등이 있었고, 각 참여자가 한 번씩만 참여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었다(Heppner, Wampold, Owen, Thompson & Wang, 2017).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 모형, 타당도, 신뢰도 등이 대체로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므로 충분한 표집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더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척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불안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을 명료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성인 초기 여성의 상황은 발달 과업을 이루는데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군대'라는 경험적 차이(김은정, 2014), 이 시기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불안장애 유병률을 보인다는 점(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불확실성의 증가는 성인 초기 여성들의 미래 불안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미래 불안의 개념과 대처 방식의 확인은 향후

성인 초기 여성을 더 잘 이해하는 많은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 불안을 경험하는 성인 초기 여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미래 불안 대처 유형 파악은 더욱 효율적인 대처 방식을 제시하거나, 부적응적 패턴 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대용, 이성주(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문화와 융합* 42(2), 359-985.

강진화, 이정애, 오강섭, 임세원(2013).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2), 291-312.

권중돈(2014). *인간행동과 사회복지 실천: 이론과 적용*, 서울: 학지사.

권중돈, 김동배(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도서출판 한나래아카데미.

김광현, 강성배(2016).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양교육연구* 10(3), 253-293.

김광현, 강성배(2018). “대학 신입생 예비대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와 융합* 40(8), 333-364.

김소희(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김정민(2004). “또래 집단 괴롭힘 상황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의 대처 전략유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793-807.

김정민(2017). “20대 미혼여성의 우울증 형성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티어의 빙산 메타포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희, 이창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학연구* 7, 127-138.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7.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2.

박기남(2011). “20-30대 비혼여성 고용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회지* 27(1), 1-39.

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윤민지(2018). “후기 청소년 심리 · 정서적 지원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6(1), 207-232.

신경일, 김두길(2018). “죽음불안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사회과학연구* 34(4), 77-96.

신혜진(2019).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울의 관계: 성별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과 속박감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937-965.

위지희, 채규만(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945-970.

오남경, 이영순(2015). “유기불안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05-929.

오찬호(2010).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 경기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2, 214-253.

이다혜(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정서곤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유림(2015). “정서적 고통의 의미와 우울의 사회적 구성: 20대 ‘명문대’ 여성의 정서적 고통과 우울증 경험에 대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겸구(1992). “대처기제 이해를 위한 포괄적 시론”,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176-195.

전겸구, 김교헌,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1994).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3), 114-135.

정주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 김정기(2015). “한국판 자비불안 척도들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81-903.

조혜영(2013). “대학재학 후기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367-393.

최명희, 김진숙 (2019).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645-670.

최미경, 조용래(2005). “생활 스트레스와 지각된 불안 통제감 및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281-298.

최사랑(2018). “내러티브 관점에서 본 성인초기 여성 정체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6(1), 67-86.

하 정, 안현의(2013).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문제성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걱정에 대한 상위인지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51-273.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hmed Matarneh (2014). "Constructing a scale of future anxiety for the students at public jordanian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6(5), 180-18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Encyclopedia of Psychology*, APA.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Arnett, J. J. (2014). "Presidential address: The emergence of emerging adulthood: personal history", *Emerging Adulthood* 2(3), 155-162.

Arnett, J., J. L Tanner(eds.) (2006).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eck, A. T., Epstein, N., Brown, G.,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

Boniwell, I. (2009). *Perspectives on Time. In S.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rstensen, L. L. (2006). "The influence of a sense of time on human development", *Science* 312, 1913-1915.

Causey, D. L.,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 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7- 59.

Cohen, F., Lazarus, R.S. (1979). Coping with the stresses of illiness. In G.C. Stone, F. Cohen, & N.E. Adler (Eds,), *Health psychology: A handbook*, San Francisco : Jossey-Bass.

Cohen, M., Ben-Zur, H., Rosenfeld, M. J. (2008). "Sense of coherence, coping strategies, and test anxiety as predictors of test performance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5(3), 289-303.

Devilly GJ (2002).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a lifestyle management course on

war vetera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9), 1119-11134.

Folkman, S. K.,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Frisén, A., Wängqvist, M. (2011). "Emerging adults in sweden: Identity formation in the light of love, work, and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6(2), 200-221.

Garnefski, N., Kraaij, V.,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Haydon, K. C. (2015). "Relational contexts of women's stress and competence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2(2), 112-123.

Hendricks, J., Peters, C. B. (1986). "The times of our lives: An integrative framewor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5), 662-678.

Heppner, P. P., Wampold, B. E., Owen, J. J., Thompson, M. N., Wang, K. T. (2017). *상담연구방법론 4판*. (이동귀, 박현주, 김동민, 박성현, 서영석, 이동훈, 이희경 옮김), 서울: Cengage Learning (원서출판 2016).

Hewitt, B. L., Flett. G. L., Mosher, S. W. (1992). "The perceived stress scale: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 to depression symptom in a psychiatric samp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4(3), 247-257.

Huss, M.T., Leak, G.K., Davis, S.F. (1993). "A validation study of the Novaco Anger Inventory",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31, 279-281.

Keniston, K. (1965). *The uncommitted: Alienated youth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Kessler, R. C., McGonagle, K. A., Zhao, S., Nelson, C. B., Hughes, M., Eshleman, S., Wittchen, H.,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Kessler, R. C., Price, R. H.,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Lazarus, R. S.,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evinson, D. J., Levinson, J. D. (1998). *The seasons of a woman's life*(김애순 역.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 세종연구원.

MacCallum, R. C., Browne, M. W.,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u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30-149.

MacCallum, R., Widaman, K., Zhang, S.,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 84-99.

Mahmoud, J. S., Staten, R., Hall, L. A., Lennie, T. A. (2012). "The relationship among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depression, anxiety, stress, demographics, life satisfaction, and coping style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3(3), 149-156.

Mills, J. F., Kroner, D. G., Forth, A. E. (1998). "Novaco Anger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in an Adult Criminal Sample", *Assessment* 5(3), 237-248.

Neugarten, B. L, Datan, N. (1974). The middle years. In S. Arieti (Ed.), *The Foundations of psychiatry* (Vol. 1., pp.592-608), Newyork: Basic Books.

Novaco, R. W. (1975). *Anger control: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tan experimental treatment. Lexington*, MA: D. C. Health.

Pearlin L. I.,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Uou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al* 19, 2-21.

Przemysław Zdybek. (2017). "Future anxiety as a predictor of the fear of childbirth", *Family Forum* 2017, 127-143.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E. (1970). Stai.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elf Evaluation Questionnaire).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22, 1-24.

Steinhardt, M., Dolbier, C. (2008). "Evaluation of a Resilience Intervention to Enhance Coping Strategies and Protective Factors and Decrease Symptomatolog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6, 445-453.

Vasquez, M. J. T., Heppner, P. P. (2017). Counseling psychologists. In R. J.

Sternberg (Ed.), *Career paths in psychology: Where your degree can take you* (p. 189-21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ebster, J. D. (2011). "A New Measure of Time Perspective: Initial Psychometric Findings for the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 (BTP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3(2), 111-118.

Zbigniew Zaleski (1995). "Future anxiety: concept, measurement, and preliminary researc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2), 165-174.

Zimbardo, P. G.,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 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Zwick, W., Velicer, W.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 432-442.

Cambridge Dictionary (2019).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사전/영어/anxiety.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관련 문헌 개관과 기존 척도들을 통해 95문항을 추출하였고,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안면 타당도를 거쳐 36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9문항을 선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예비조사에 성인 초기 여성 93명, 본조사에 155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하위요인은 3요인으로 정서적 대처, 언어적 대처, 초자연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개발한 척도는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합치도를 보였고, 요인구조도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와는 양호한 상관을, Novaco 분노 척도와는 낮은 상관을 보여 기존 척도들과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논의에서는 개발된 척도의 의의와 제한점, 향후 활용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성인 초기 여성, 척도 개발, 대학생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uture Anxiety Coping Scale for Emerging Adulthood Women

Yeongkwang Han(Konyang University)
Wonyoung Song(Kony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uture anxiety coping scale for emerging adulthood women, and to tes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First, 95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related scales, and these were rearranged into 36 items through face validity and content validity. Then, after a preliminary study (n=93) and the main study (n=155), a 9-item scale was developed. The final scale comprises 3 subscales—emotional coping, verbal coping, and supernatural coping and has appropriate test-retest reliability,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 structure. With respect to convergent and discriminant reliability, it has a high correlation with a multiphasic coping scale, and low with the Novaco anger scal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esents its implication and limitation, and discusses idea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future anxiety, coping strategy, emerging adulthood women, scale development, university student

이 논문은 2020년 3월 10일에 접수 완료되어 2020년 3월 2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4월 10일 편집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